
최근 신어의 조어적 특징

노명희 · 성균관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1. 들어가는 말

신어(neologism)라고 하면 넓은 의미로 기존 언어와 유연성(有緣性)이 없이 새롭게 창조된 말, 기존의 언어재를 이용해서 만든 말, 외국어에서 차용한 말, 기존의 어휘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여 쓰는 말을 통틀어 이른다. 그러나 실제로 조사된 신어를 보면 기존의 말과 유연성이 없이 완전히 새롭게 창조된 말은 극히 드물다.¹⁾ 즉 새로운 단어를 만들 때에는 기존의 언어재를 새롭게 조합하거나 기존 어휘의 일부를 잘라 내어 형태를 변화시켜 만드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신어는 전에 없던 개념이나 사물을 표현하기 위해서 만들기도 하지만 이미 있던 개념이나 사물일지라도 그것을 표현하던 말의 표현력이 감소했

1) 무(無)에서 만들어진 단어는 극히 드물다. 새로 창조된 대표적인 예로는 ‘googol’이 있는데, 이것은 1에 100개의 0을 붙인 숫자를 뜻하는 말로서 나이 어린 조카에게 엄청나게 큰 숫자를 생각해 보라고 했던 어느 수학자가 만들었다고 한다(Aitchison, 1987/2003:175 참조).

을 때 신선한 새 맛을 가진 말로 바꾸려는 대중적 욕구에 의해서도 생겨난다(남기심, 1983:193). 이처럼 신어의 생성 원인은 다양하다. 그러나 신어가 형성되는 조어 과정은 위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주로 기존의 언어재를 이용한다는 특징이 있다.

이 점에서 본고는 신어의 형성 기제를 고찰하되, 기존의 언어재가 어떠한 조어론적 과정을 통해 신어로 나타나는지에 중점을 두려 한다. 즉 신어 형성에 생산적으로 참여하는 다음 세 가지 조어 방법을 중심으로 기술하려는 것이다. 기존의 단어들을 단순히 병렬시켜 만드는 합성(compounding), 기존의 언어재에 접두사나 접미사를 결합하여 만드는 파생(derivation), 그리고 기존의 두 단어에서 일부분씩을 잘라 결합하여 만드는 혼성(blending)이다.

물론 신어에는 이렇게 기존 단어를 재결합하거나 일부를 변화시켜 만드는 방법 이외에도 기존의 어휘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여 형성되는 경우도 더러 있다. 대표적인 예로 ‘가미술, 냄비’ 등을 들 수 있다. ‘가미술’은 “서서히 달궈지는 일이나 그런 사물”이라는 의미를 새로 획득하고, ‘냄비’는 “금세 끓었다 식는 일이나 그런 사물”이라는 의미를 획득하여 신어가 되었다.

이처럼 기존 단어가 새로운 의미를 획득하여 신어가 되는 과정에는 기존 단어의 연상 의미(connotation)²⁾가 크게 작용한다. 한 단어의 의미는 그것이 가리키는 지시체에 대한 일정한 개념을 활성화시킬뿐더러 이에 연관된 여러 가지 연상 의미도 활성화시키는데, 이러한 연상 의미가 신어가 형성되는 바탕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본고는 조어 과정에 초점을 맞춰 신어를 다루므로 이처럼 기존의 언어재가 새로운 의미를 획득하여 신어가 되는 경우는 논외로 하기로 한다.

여기 제시된 자료는 국립국어원에서 조사된 2002년~2005년의 신어를 대상으로 하였다. 본고는 이 자료를 중심으로 하여 최근 신어에서 발견되는 특징적인 현상을 살펴보기로 한다.

2) 연상 의미(connotation)는 1차적 의미에 부가되는 2차적 의미로 사회 구성원들에게 연상되는 관습화된 의미이다(Löbner 2002:35 참조).

2. 합성

단어 형성 과정에서 가장 보편적인 것은 둘 이상의 어기가 결합하는 합성(compounding)으로, 신어에도 합성어가 많다. 그리고 신어 합성어 중에서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하는 것이 명사와 명사가 결합된 합성 명사류이다.³⁾ 신어에서 발견되는 합성어는 어종상의 별다른 특징이 발견되지 않는다. 구성 요소가 고유어나, 한자어나, 외래어나 하는 데에 따른 합성 명사의 특성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 이는 이들이 그 기원과 상관없이 국어 어휘의 일원으로 동화된 채 신어 형성에 참여한 결과로 보인다.

(1) 고유어+고유어

- ㄱ. 명사+명사: 그림말(‘이모티콘’), 길도우미(‘내비게이션’), 멧올림(‘컬러링’), 빗장풀기(‘코드프리’)⁴⁾
- ㄴ. 부사+명사: 다걸기(‘올인’), 두루누리(‘유비쿼터스’)
- ㄷ. 명사+명사: 떡잔디, 물갈창, 불닭, 밤도깨비, 밀걸림, 배바지

(1ㄱ, ㄴ)에서 보듯이 고유어끼리 결합한 신어에는 순화어가 많다. 외래어를 순화하다 보니 고유어에 고유어를 결합하여 단어를 형성하게 된 까닭이다. 이러한 부류의 신어는 (1ㄱ, ㄷ)과 같이 ‘명사+명사’의 구조로 결합된 예가 많다.

(1ㄴ)은 부사가 명사를 꾸미는 비통사적 합성어의 예인데, ‘다걸기’는 베틀을 뜻하는 ‘걸기’에 ‘다’가 결합된 것으로 이해되며, ‘두루누리’도 “모든 곳에 존재하는”이라는 뜻을 나타내기 위해 ‘누리’라는 명사에 ‘두루’라

3) 2002년 신어 조사에 따르면 합성어가 전체의 65%를 차지하고, 품사별로는 명사가 전체의 76.5%를 차지한다.

4) ‘빗장풀기, 다걸기’와 같은 예는 직접 성분 분석을 [[빗장풀-]-기], [[다걸-]-기]와 같이 할 수도 있고, [빗장+풀기], [다+걸기]와 같이 하는 방법이 있다. 전자와 같이 하면 이들은 파생어가 되고, 후자와 같이 하면 일반적으로 합성어(compound)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 의미 구조상으로는 전자와 같이 분석이 가능하다고 하여도 새로운 단어의 생성 과정을 고려할 때 후자로 분석하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즉 ‘풀기, 걸기’가 어휘부에 존재하고 이를 결합하여 썼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빗장풀기’에서 ‘풀기’는 완전한 명사로는 잘 쓰이지 않지만 명사형에 속하는 것으로 여기에 포함시켜 다루었다.

는 부사를 결합한 것으로 보인다. ‘유비쿼터스’는 “언제 어디서나 어떤 기기로든 자유롭게 통신망에 접속해 자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의”라는 형용사로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유비쿼터스 컴퓨팅’ 등과 같이 명사를 수식하는 용법으로 사용된다. 그러나 ‘두루누리’는 ‘부사+명사’의 구조 때문인지 아직은 ‘두루누리 네트워크, 두루누리 컴퓨팅’ 등의 용법이 그다지 자연스럽게 읽히는 못하다. 이들 순화어는 통사적으로 안정되지 못하여 언중이 어느 정도까지 수용할지에 대해서 그 정착 과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1ㄷ)도 고유어 명사끼리 결합한 신어로, 선행 명사가 대상을 지시하는 본래의 의미로 쓰이지 않고 후행 명사에 성상(性狀), 재료, 시간, 위치 등의 의미를 덧붙여 주는 역할을 한다. ‘떡잔디’는 “익은 무성해 보이는 데 반해 뿌리는 아주 빈약한 잔디”라는 의미로 쓰여 선행 명사 ‘떡’이 후행 명사 ‘잔디’의 성상과 관련된다.⁵⁾ ‘불닭’도 “매우 맵게 하여 튀기거나 구운 닭고기”라는 뜻이므로 ‘불’이 “맵다”라는 새로운 의미를 표현하면서 성상과 관련된다. 이에 비해 ‘물갈창’은 “물을 넣어서 만든 갈창”이란 뜻이므로 ‘물’이 ‘갈창’의 재료를 나타내며, ‘밤도깨비(밤에 잠을 자지 않고 영뚱한 짓을 일삼는 사람), 밀걸림(낚시에서, 낚싯봉이나 낚싯바늘이 바위나 수초 따위에 걸리는 일)’은 선행 명사 ‘밤, 밀’이 시간이나 위치와 관련된다. ‘배바지’는 “배까지 끌어올려 입는 바지”이므로 위치와 관련되며, 이는 ‘골반바지, 반골반바지’ 등에서 일종의 유추(analogy)⁶⁾ 과정에 의해 형성된 것이다.

(2) 고유어+한자어

- ㄱ. 명사+명사: 곱창마차(--馬車), 동생부대(--部隊), 뚜껍광고(--廣告), 새싹 채소(--菜蔬), 새집증후군(--症候群), 생떼파업(--罷業), 쓰레기만두(---饅頭), 토막속보(--速報), 그물수비(--守備), 마지장화(--長靴)

- ㄴ. 어간+명사: 어울통신(--通信)

5) ‘떡잔디’가 쓰이는 예로는 다음이 있다. “일명 ‘떡잔디’라고 부르는 중동의 잔디는 건조한 날씨 때문에 위쪽은 잎이 넓어 무성하지만 아래쪽의 뿌리 근처는 엉성하게 비어 있어 발이 푹푹 빠지는 느낌을 준다.”

6) 유추(analogy)는 최근 신어 형성의 대표적인 기제로 논의되며, 유추적 신어 형성의 예로 ‘재테크→땅테크, 군살→본(本)살, 재혼→새혼’ 등을 들 수 있다.

- ㄷ. 명사형/어근+명사: 꾸림정보(--情報, ‘콘텐츠’), 뒤음차(--茶), 시드름병(---病); 싱싱회(--膾)
- ㄹ. 부사형+명사: 이래서야정국(---政局)

(2ㄱ)은 고유어 명사에 한자어 명사가 결합한 구조이다. ‘곱창마차’는 ‘포장마차’에서 유추하여 만든 단어로 “곱창이나 곱창전골을 전문적으로 파는 포장마차”를 의미한다. ‘동생부대(자기보다 나이 어린 스타를 열광적으로 좋아하는 무리)’도 ‘오빠부대’라는 기존의 단어에서 ‘오빠’를 ‘동생’으로 대치하면서 생겨난 일종의 유추적 단어 형성으로 볼 수 있다.

(2ㄴ)의 ‘어울통신’은 ‘로밍(roaming)’을 순화한 말로서 ‘어우르다’의 옛말 ‘어울다’의 어간에 명사가 결합한 형식이다. 동사의 어간에 명사가 직접 결합하는 조어 방식은 현대 국어에서 생산적이라고 볼 수 없으나, 순화어라는 특성상 이들 방식이 활용된 것으로 보인다. 즉 비생산적인 조어 방식에 따라 의도적으로 형성된 예라 할 수 있다.⁷⁾

(2ㄷ)은 고유어 부분이 동사 ‘꾸리다, 뒤다, 시들다’의 명사형이긴 하나 조사와 자유롭게 결합하여 자립적으로 쓰이지 못한다는 특징이 있다(*꾸림을, *뒤음이, *시드름이).⁸⁾ ‘싱싱회’의 ‘싱싱’도 자립 명사로 쓰이지 못하고 ‘싱싱하다’의 형식으로 쓰이는 일종의 어근이다.⁹⁾

(2ㄹ)의 ‘이래서야정국’은 ‘이렇다’의 활용형인 ‘이래서야’에 명사가 결합한 구조로서 부사형에 명사가 결합한 드문 예이다. 이 예는 신어가 기존의 단어 형성 과정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형성됨을 잘 보여 준다.

(3) 한자어+고유어

- ㄱ. 명사+명사: 군대근(軍隊-), 명품개(名品-), 안줏별레(按酒-), 자동차길(自

7) 창조적인 신어는 비생산적인 유형을 따르면서 의도적으로 형성되는 경우가 있다(Haspelmath, 2002:101~103 참조).

8) 김창섭(1996:19)에서는 ‘갈림길’의 ‘갈림’과 ‘젓먹이’의 ‘젓먹’ 등을 잠재어로 다루고 있다. 잠재어는 단어 형성 규칙의 잠재적인 적격 출력으로, 독립적으로 나타나지 못하나 더 큰 복합어의 내부에는 나타나는 단어의 중심부이다. ‘꾸림’ 따위도 일종의 잠재어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본고는 이들 잠재 명사를 ‘명사형’으로 분석하기로 한다.

9) 어근(root)은 자립적으로 쓰이지 못하고 어미와 직접 결합하지 못하는 단어의 중심부로 정의된다(이익섭·채완, 1999:62~63).

動, ‘무빙위크’), 공갈젓꼭지(恐嚇---), 녹차바람(綠茶--)

ㄴ. 명사+명사형: 문잡이(門--)

(3ㄱ)의 ‘군대끈’은 “군대에서의 경력”을 이른다. 흔히 “학력”이라는 뜻으로 쓰이는 ‘가방끈’에서 ‘가방’을 ‘군대’로 대치하여 만들어 낸 단어로 해석된다. (3ㄴ)의 ‘문잡이(문을 손으로 잡아서 열 수 있도록 덧붙여 놓은 부분)’에서 ‘잡이’는 일종의 잠재 명사로, ‘문’에 ‘잡이’가 결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고유어+한자어’ 결합과 마찬가지로 합성어 신어에 명사와 명사의 결합이 많은 것은 독립적인 특성을 지닌 단어끼리의 결합이 용이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반면에 자립적으로 쓰이지 못하는 어근에 어근이 결합하여 신어를 형성하는 일은 드문데, 이는 어근이 그만큼 독자성이 약하여 화자에게 독립된 단위로 인식되기 어렵기 때문일 것이다.

화자가 신어를 형성할 때에는 머릿속 사전에 있는 단위들(단어, 형태소 등)을 이용하게 되는데, 이때 어근이나 개별 형태소보다는 독립적인 단위로 인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용이할 것이다. 따라서 합성의 방법으로 신어를 만들 때에는 그 언어재가 고유어인가, 한자어인가, 외래어인가 하는 것보다는 그 단위가 어느 정도 독자성을 지니는가 하는 점이 더 많이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4) 한자어+한자어

ㄱ. 명사+명사: 도시농부(都市農夫), 문화접대(文化接對), 자격증과외(資格證課外), 대리운전(代理運轉), 대리주차(代理駐車)

ㄱ' 소아강박증(小兒強拍症), 태반주사(胎盤注射)

ㄴ. 어근+명사: 반려동물(伴侶動物), 기숙과외(寄宿課外)

단어형성에서 ‘명사’와 ‘명사’가 결합하여 합성어를 만들 때 두 명사의 관계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예측 가능한 관계일 경우가 많다. (4ㄱ)에서 ‘도시농부’는 “도시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으로 해석됨이 일반적이며, ‘문화접대’도 “여러 가지 접대 중에서 문화와 관련되는(문화적인) 접대”를

의미함이 일반적이다. 또한 ‘자격증과외’는 “자격증을 따기 위해 하는 과외”로 해석되며, ‘대리운전, 대리주차’는 “대리로 하는 운전이나 주차”의 의미로 해석된다.

이에 비해 (4ㄱ)의 ‘소아강박증’은 “어린아이에게 나타나는 강박증”으로 해석되며, 이와 관련하여 ‘노인강박증’이라는 합성어도 가능하다. 그러나 ‘강박증’과 그것이 취하는 선행 명사와의 관계는 ‘죽음강박증, 다이어트강박증, 경쟁강박증’과 같이 강박 증상이 나타나는 대상을 의미하게 됨이 일반적이다. ‘태반주사’의 경우도 두 명사의 관계가 일반적이고 습관적인 관계라고 보기 힘들다. ‘근육주사, 혈관주사, 피하주사’ 등은 “근육이나 혈관, 피하 조직 속에 놓는 주사”를 의미하는데, ‘태반주사’는 “태반을 재료로 한 주사”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부류의 의미 관계는 쉽게 예측이 되지 않아 신어로서의 신선함을 주는 면이 있다. 일반적인 의미 관계는 화자가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는 데 비해 예측을 벗어난 의미 관계는 화자에게 창조적인 신어로 인식될 수 있다

(4ㄴ)의 ‘반려동물’은 “인생의 또 다른 반려자로서의 애완동물”을 의미한다. ‘반려자(伴侶者)’에서 ‘반려동물’을 만들어낸 것으로 여겨지는데, 여기서 ‘반려(伴侶)’는 “짝이 되는 동무”를 의미하지만 그 자체가 자립 명사로 쓰이는 일은 거의 없다. “¹인생의 반려가 되다, ²성실한 반려를 언다”와 같은 예가 적어도 현대 국어에서는 어색한 것으로 보이므로 ‘반려’는 일종의 어근(root)으로 해석된다.¹⁰⁾ ‘기숙과외’도 선행어 ‘기숙’이 자립적으로 쓰이지 못한 어근이다. 이 단어는 “일정한 장소에 묵으면서 비공식적으로 가르침을 받는 과외”를 뜻하며 선행 명사가 과외의 방법을 가리킨다.

(5) 고유어+외래어

- ㄱ. 명사+명사: 가위슛(--shoot), 공기캔(--can), 맞춤버스(--bus), 쌍둥이폰(phone), 번개쇼핑(--shopping), 올빼미투어(---tour), 곱창밴드(--band), 땅콩보트(--boat), 목폴라(-pola)
- ㄴ. 명사+어근: 올챙이송(---song), 싸가지송(---song), 당근송(--song)

10) ‘반려’는 ‘반려자’와 같은 합성어의 구성 요소로만 쓰이는 것으로 보이며, 이런 종류의 한자어 어근으로는 ‘내구성(耐久性)’의 ‘내구’, ‘학구파(學究派)’의 ‘학구’ 등을 들 수 있다.

(5ㄱ)은 고유어 명사에 외래어 명사가 결합한 예인데, 여기서 ‘슛, 켄, 버스, 폰’ 등은 국어에서 자립 명사로서의 용법을 가진다. ‘가위슛’은 공을 칠 때의 모양을 형상화한 것으로 “축구에서 가위처럼 양다리를 교차하여 공을 차는 일”을 뜻한다. ‘번개슛, 벼락슛’은 “공을 빠르게 차거나 던지는 일”을 의미하여 공을 넣을 때의 빠르기를 나타낸다. ‘목폴라’의 ‘폴라’는 영어의 ‘poloneck’에서 만들어진 말이나 국어에서는 ‘폴라티’와 같이 ‘폴라’로 변형되어 쓰인다.

(5ㄴ)의 ‘송’은 국어에서는 명사로 잘 쓰이지 않고, ‘허무송, 인터넷송’ 등과 같이 한자어, 외래어 등 여러 어기 뒤에 결합한 형식으로 쓰인다. 이것은 한자어 어기가 단어 뒤에 결합하여 쓰이면서 점차 접사적인 성격을 띠는 현상(‘선진국, 동맹국’의 ‘국’)과 같이 외래어 단어가 국어에 들어와서 차츰 접사적인 성격으로 변화되어 가는 예로 볼 수 있을 것이다.¹¹⁾

이 밖에도 외래어가 포함된 합성어로 (6)의 외래어에 고유어가 결합한 경우, (7)의 한자어에 외래어가 결합한 경우, (8)의 외래어에 한자어가 결합한 경우 등이 있다.

- (6) 외래어+고유어: 바나나똥(banana-), 에어컨웃(air conditioner-), 트로피 아내(trophy--)
- (7) 한자어+외래어
 - ㄱ. 명사+명사: 보행벨트(步行belt), 온달콤플렉스(溫達complex), 지선버스(支線bus), 구석기폰(舊石器phone), 당뇨폰(糖尿phone)
 - ㄴ. 어근+명사: 총명파스(聰明pasta),¹²⁾ 무실세트(無失set)
- (8) 외래어+한자어: 디지털치매(digital癡呆), 베이비채소(baby菜蔬), 솔로부대(solo部隊), 스타지수(star指數), 아파트장(apartment場), 테러증후군(terror症候群), 트로피남편(trophy男便), 뉴스망(news網), 다이어트약(diet藥), 드럼세탁기(drum洗濯機)

11) 이와 같은 예를 접사로 볼 때의 문제점은 그 의미가 구체적이라는 점이다. 기능상으로는 여러 종류의 어기 뒤에 결합하여 부가적이라는 특성을 지니는 듯이 보이지만, 영어에서 ‘song’의 의미가 그대로 남아 있어 아직 완전히 접사화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듯하다.

12) 이마에 붙이기만 해도 정신이 맑아진다는 파스.

(6)의 ‘바나나똥’은 “바나나 같은 똥”을 의미하고, ‘트로피아내’는 “성공한 중장년 남성들이 수차례의 결혼 끝에 마치 트로피를 획득하듯 얻은 젊고 아름다운 아내”를 의미한다. 선행하는 외래어 명사가 은유적으로 쓰인다는 특징이 있다.

(7ㄱ)은 한자어 명사가 외래어 명사에 선행하는 예이고, (7ㄴ)은 한자어 어근인 ‘총명, 무실’이 외래어 명사와 결합한 예이다. 2음절 한자어 중 ‘하다’와 결합하여 서술어로 쓰이는 예들은(‘총명하다’의 ‘총명’ 등) 국어 체계 내에서는 조사와 결합하여 명사로 쓰이지 못하는 예이더라도 국어 화자에게 단어에 준하는 형식으로 인식되므로 비교적 활발히 신어 형성에 참여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외래어는 기존 언어재에 비해 신어에서 더 활발히 사용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신어 합성어에서는 외래어가 고유어나 한자어와 결합하는 일이 잦다. 이제까지는 한자어가 조어력이 뛰어나 단어 형성의 언어재로 가장 많이 이용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한자어 못지 않게 신어에서 외래어의 사용이 급증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국어 화자들이 한자어에 대해 가지고 있는 지식만큼 영어 외래어에 대한 지식이 증가하였기 때문인 듯하다.

- (9) 외래어+외래어: 다이어트폰(diet phone), 스트레스폰(stress phone), 박스폰(box phone), 액션퀸(action queen), 워터파크(water park), 웰빙과마(well-being permanent), 논스톱슛(nonstop shoot), 치킨데이(chicken day), 티처보이(teacher boy), 라이팅폰(lightning phone), 원추송(want you song), 노버튼(no button), 노옵션(no option)

(9)는 외래어끼리 결합한 신어이다. 이러한 결합은 영어에서는 명사+명사(‘다이어트폰’), 형용사+명사(‘라이팅폰’) 등의 결합 구조를 가지지만 국어에서는 이들 구성 요소가 독립된 단어 자격이 있는지, 형태소로 분석해야 하는지 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원추송’에서 ‘원추’는 영어에서 구 상당의 요소이지만 국어에서는 ‘송’에 결합하는 하나의 어근으로 분석될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 ‘노버튼’도 영어에서는 구에 해당하지

만 이 단어에서의 ‘노’는 ‘노옵션’과 계열 관계를 이룸으로써 분석되는 하나의 형태소일 따름이다. 이와 같이 외래어는 원어에서의 문법적 지위와 상관없이 국어에서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 그 문법적 지위가 결정된다는 특징이 있다.

3. 파생

최근 몇 년간의 신어에서 가장 많은 수의 단어를 만든 접미사로 한자어 접미사 ‘족(族)’을 들 수 있다.

- (10) 가. 한자어 어기: 문화족, 신명품족, 자립족, 주말족
 나. 고유어 어기: 반딧불족, 밤도깨비족, 봄맞이족, 철새족, 그림족, 엄지족
 다. 외래어 어기: 피크닉(picnic)족, 더블라이프(double life)족, 디지털스쿨(digital school)족, 셀카(self camera)족, 슈트케이스(suitcase)족, 웰루킹(well-looking)족, 윌피트(well-fit)족, 투폰(two phone)족, 패러싱글(para single)족, 펴플(폼+reply)족, 레포츠(leisure sports)족
 라. 구: [케이티엑스 통근]족, [올빼미 헬스]족, [도심 호텔 휴양]족, [청계천 조깅]족, [구석방 페인]족, [출산 기피]족, [암체 쓰레기 여행]족

‘족’은 “어기의 특성을 가진 사람이나 그런 무리”를 뜻하면서 어기의 기원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결합한다. 최근에는 외래어 사용이 늘면서 (10 다)처럼 외래어에 ‘족’이 결합한 예들이 다수 발견된다. (10 라)은 일반 단어가 아닌 구 상당 어구에 ‘족’이 결합한 경우로 신어 형성에서 ‘족’이 아주 생산적임을 잘 보여 준다.

다음은 한자어 접미사 ‘화(化)’의 예인데, ‘화’는 “~처럼(로) 만들다/되다”의 의미를 부여하면서 일반적으로 서술성이 없는 명사 어기에 결합하여 서술성을 부여한다는 특징이 있다(노명희, 1998/2005:217). 즉 서술성

이 없어 ‘하다’와 결합이 불가능한 어기(*타성하다, *액자하다, *고연령하다, *단기하다’ 등)에 ‘화’가 결합하면, 그 전체가 ‘하다’나 ‘되다’와 결합하여 동사로 쓰일 수 있게 된다. ‘화’는 영어처럼 명사에서 동사로의 전환(conversion)이 자유롭지 못한 국어에서 명사를 동사로 쓰일 수 있게 하는 유용한 접미사이므로 생산성이 더욱 증대되어 가는 특징을 보인다.¹³⁾

- (11) ㄱ. 한자어 어기: 타성화, 액자화, 고연령화, 단기화, 내실화
- ㄴ. 외래어 어기(명사): 드라마화, 매뉴얼화, 프로화, 디지털화, 체인화, 펄프화
- ㄷ. 외래어 어기(어근): 멜로디컬(melodical)하다, 클린(clean)하다, 슬림(slim)하다
- ㄹ. 외래어 어기(어근)+화(化): 멜로디컬화하다, 클린화하다, 슬림화하다

(11ㄴ)은 ‘하다’ 결합이 불가능한 외래어 명사 어기에 ‘화’가 결합하여 서술성이 부여된 예이다. ‘화’가 결합한 뒤에는 ‘하다’나 ‘되다’와 결합하여 동사로 쓰일 수 있게 된다. (11ㄷ)은 영어의 형용사에 ‘하다’가 결합하여 형용사로 쓰인 예로서, 이때에도 외래어 어근에 ‘화’를 결합한 뒤 다시 ‘하다’를 결합하여 쓰는 것을 볼 수 있다(11ㄹ). 여기서 ‘멜로디컬, 클린, 슬림’은 국어에서 자립적으로 쓰이지 못하는 어근의 자격을 가지지만 여기에 ‘화’가 결합한 ‘멜로디컬화’ 등은 서술성 명사가 된다. (11ㄹ)은 ‘화’가 결합한 서술성 명사에 ‘하다’가 결합하면 동사로 쓰이는 것을 보여준다. 형용사를 동사로 쓸 때는 ‘깨끗하게 하다, 화려하게 하다, 클린하게 하다’와 같이 ‘-게 하다’ 형을 쓰는 것이 일반적인데, 외래어의 경우 점차 ‘멜로디컬화하다, 클린화하다’와 같이 ‘화하다’ 형이 일반화되는 경향이 있다.

- (12) ㄱ. 주의(主義): 국익만능주의, 소지역주의, 예외주의, 무사안일주

13) 영어에서는 전환(conversion)이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 대표적인 방식의 하나로 언급될 정도로 일반적이다. ‘Marigold chocolated the cake’처럼 명사에 동사 어미를 붙이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Aitchison 1987/2003:177~178). 반면에 국어는 명사에 직접 어미를 결합할 수 없으므로 ‘하다’를 결합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대표적인 예로 ‘등산, 스테디’와 같은 한자어, 외래어 명사에 ‘하다’를 결합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그런데 ‘하다’ 결합이 가능한 어기가 제한되어 있으므로 ‘하다’ 결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화’를 결합하여 서술성을 부여한 뒤 ‘하다’를 결합하여 서술어로 쓰게 된다.

의, 법원 선의주의, 관작(官爵) 지상주의, 언니주의, 맥가이버주의

ㄴ. 이즘(ism): 대처리즘(Thatcherism), 디젠더리즘(degenderism), 사이버테러리즘(cyber terrorism), 오노이즘(Ohnoism), 자이겐티즘(gigantism)¹⁴⁾; 언니즘, 귀차니즘

‘주의’는 원래 “체계화된 이론이나 학설”을 의미하는 명사이지만 점차 “일정한 태도나 사고방식”을 뜻하게 되면서 (12ㄱ)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접사적인 특성을 보인다. 더구나 (12ㄴ)에서 보듯이 ‘주의’와 같은 뜻의 영어 접미사 ‘이즘(ism)’이 생산성을 얻으면서 ‘주의’도 접사처럼 인식되는 경향이 강해져 ‘언니, 맥가이버’와 같은 고유어, 외래어뿐만 아니라 단어 이상의 단위에도 결합되는 양상을 보인다. (12ㄴ)에서 ‘언니즘(오빠, 누나, 형, 언니 등을 모두 언니라고 부르자는 주장), 귀차니즘’은 고유어에 ‘이즘’이 결합한 예로서 ‘귀찮+이즘’이 결합하면서 ‘ㅎ’이 탈락한 경우이다.

(13)ㄱ. 공부짱, 뇌짱, 돈짱, 디카짱, 폰카짱, 말짱, 몸짱, 뼈짱, 속짱, 수학짱, 영짱, 울짱(all-), 요리짱, 운동짱, 춤짱, 폰카짱, 혈관짱, 게임짱

ㄴ. 몸짱, 얼짱, 춤짱

(13ㄱ)은 접미사 ‘짱’이 결합한 신어로서 ‘짱’은 일반적으로 “어기 X가 가리키는 것을 아주 잘하거나 그것이 뛰어나게 좋은 사람”의 의미로 쓰이는데, ‘돈짱’과 같은 예에서는 “어기X가 가리키는 것이 많거나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 정도의 의미로 해석된다. ‘짱’은 “우두머리”라는 뜻의 한자어 ‘장(長)’에서 왔다는 설과 일본어에서 왔다는 설이 있으며, 약간 속되게 말할 때 결합하여 쓰는 경향이 있다. 대부분의 어기에 결합 가능하여 생산성이 높아지면서 접사화하였다. (13ㄴ)은 ‘짱’과 음상이 비슷하면서 이와 대립되는 의미로 고유어 ‘짱’을 결합하여 쓴 예이다. ‘짱’도 ‘짱’이

14) 큰 것이면 무조건 좋다는 태도나 그런 사고방식.

접사화하는 것과 비례하여 접사화하는 경향을 보인다.

- (14) ㄱ. 틱(tic): 유아틱하다, 초딩틱하다, 학생틱하다, 시골틱하다
 ㄴ. 적(的): 유아적이다, 도시적이다, 여성적이다, 카르스마적이다, 톨스
 토이적이다

(14)의 ‘틱’은 아주 최근에 쓰인 외래어 접사는 아니지만, 한자어 접미사 ‘적’이 영어의 ‘틱(tic)’을 번역 차용한 것이어서 이와 대조적인 용법을 보이면서 생산성을 얻어가고 있다. ‘적’은 “어기의 속성이 풍부히 있음” 정도의 의미를 가져 여기에 대해 긍정적 의미를 부여한다. 그에 비해 ‘틱’은 ‘적’과 유사한 의미를 가지면서 어기의 부정적인 의미를 특성화하면서 비하하는 문맥에서 쓰인다는 특징이 있다. 또 ‘틱’은 ‘유아틱, 초딩틱’처럼 ‘하다’와 결합하여서만 쓰이는 어근을 형성한다.

4. 혼성

혼성(blending)은 하나의 단어가 다른 단어의 일부와 합해지거나 두 단어의 부분들이 합해지는 합성의 한 경우이다. 이 혼성도 매우 많이 나타나는 신어 형성 방법의 하나인데, 특히 외래어끼리의 결합에서 많이 발견된다. 예를 들어 ‘유비쿼터스 시티즌’처럼 단어와 단어를 결합하여 구로 쓰는 것보다 ‘유비쿼터스’의 ‘유’와 ‘시티즌’의 ‘티즌’을 결합하여 ‘유티즌’이라고 쓰는 것이 경제적이므로 혼성에 의한 신어가 생산적으로 형성된다. 외래어에 혼성에 의한 신어가 많은 것은 외래어의 경우 ‘유비쿼터스, 시티즌’과 같이 다음절의 단어도 국어에서는 하나의 형태소이므로 여러 음절의 형태소를 다 쓰는 것이 비경제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인 듯하다.

- (15) ㄱ. 유티즌(utizen=ubiquitous+citizen), 넷포터(netporter=netizen+reporter), 머피아(mofia=mother+Mafia), 모티켓(motiquette=mobile+etiquette), 비조트(busort=business+resort), 액티즌(actizen=action+citizen), 페로

시티즘(feroticism=feminism+eroticism)

- ㄴ. 셀카(selca=self+camera), 필카(filca=film camera), 누브라(nubra=nude brassiere)
- ㄷ. 폰티즌(phonetizen=phone+citizen), 카켓팅(carketing=car+market-ing), 헬스로빅(healthrobic=health+aerobic)

(15ㄱ)은 영어 첫 단어의 앞부분과 둘째 단어의 뒷부분이 결합한 예로서 가장 흔히 발견되는 혼성의 예이다. (15ㄴ)은 첫 단어의 앞부분과 후행 단어의 앞부분을 떼어 만든 예이며, (15ㄷ)은 첫 단어 전체와 후행 단어의 뒷부분을 결합하여 만든 예이다. 이들 혼성은 한자어에 주로 나타나는 것으로 기술되어 왔으나 외래어에도 널리 나타남을 잘 볼 수 있다. 그런데 외래어 사이의 혼성도 외래어에서의 형태소 경계와 상관없이 국어 음절 단위로 잘려져 결합된다는 특징이 있다. 다음 (16)은 외래어와 한자어 또는 고유어가 결합한 혼성의 예이다.

- (16) 노티즌(老人+netizen), 땅팅(땅+meeting), 번팅(번개+meeting), 민텔(民泊+hotel), 군대스리가(軍隊+Bundesliga), 보파라치(補助金+paparazzi), 성과라치(性paparazzi)

이들 예는 주로 첫 단어의 앞부분과 후행 단어의 뒷부분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특히 ‘보파라치, 성과라치, 쓰파라치, 식파라치, 표파라치’ 등의 예는 ‘파라치’가 거의 접사처럼 쓰인다는 특징이 있다.

5. 결론

이상에서 우리는 최근에 조사된 신어를 대상으로 하여 그 형성 과정을 간략히 살펴보았다. 신어는 주로 기존에 있는 언어 요소를 재결합하거나 변형시켜 만들어지며, 특히 합성이나 파생, 혼성 등의 방법을 통해 형성된다. 합성의 경우는 그 어종과 관계없이 국어에서 활발히 쓰이는 언어 단

위를 병렬한 ‘명사+명사’ 결합이 일반적이었으며, 파생의 경우는 한자어 접미사뿐만 아니라 외래어 접미사도 차용하여 쓰는 특징이 있었다. 혼성은 주로 영어 외래어에서 일부를 따와 만들어진 경우가 많았다.

2001년 신어 조사에서는 한자어가 포함된 신어가 전체의 79.5%를 차지할 정도로 한자어가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외래어는 25.9%에 불과하였다. 그런데 2002년부터는 외래어의 비율이 급증하였다. 그리하여 2002년에는 64%, 2003년에는 56.1%, 2004년에는 외래어가 포함된 신어가 55.1%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한자어가 조어력이 뛰어나 신어 형성의 언어재로 가장 많이 쓰인다는 기존의 인식을 바꾸는 것으로서 그동안 한자어가 차지하던 위상이 외래어, 특히 영어로 옮겨 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물론 이들 외래어가 국어에 어느 정도까지 정착할 수 있을지는 아직 단언하기 어렵지만 사회 변화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만은 틀림없다 하겠다.

| 참고 문헌 |

- 강신항(1991), 『현대 국어 어휘 사용의 양상』, 태학사.
국립국어원(2001), 「2001년 신어」, 국립국어연구원.
국립국어원(2002), 「2002년 신어」, 국립국어연구원.
국립국어원(2003), 「2003년 신어」, 국립국어연구원.
국립국어원(2004), 「2004년 신어」, 국립국어원.
국립국어원(2005), 「2005년 신어」, 국립국어원.
김창섭(1996), 『국어의 단어 형성과 단어 구조 연구』, 국어학총서21, 태학사.
남기심(1983), “새말[新語]의 생성과 사멸”, 『한국어문의 체문제』, 서울: 일지사, pp.192~228.
노명희(1998/2005), 『현대 국어 한자어 연구』, 태학사.

- 문금현(1999), ‘현대 국어 신어의 유형 분류 및 생성 원리’, 「국어학」 33
집, pp. 295~325.
- 이승명(2001), ‘신어의 해석적 연구’, 「이중언어학」 19호, 이중언어학회,
pp. 351~364.
- 이익섭·채환(1999), 『국어문법론 강의』, 학연사.
- 임지룡(1997), 『인지의미론』, 탑출판사.
- Aitchison, J.(1987/2003), *Words in the Mind: an introduction to the mental
lexion*, Cambridge: Blackwell.
- Haspelmath, M.(2002), *Understanding Morphology*, Oxford University Press.
- Keith Brown et al(2006), *Encyclopedia of Language & Linguistics*, Elsevier
Ltd.
- Löbner(2002), *Understanding Semantics*, Arnold.